

어울림이 살길이다.

Harmony makes small things grow, lack of it makes great things decay. (Sallust)

“조화는 작은 것들을 크게 성장하게 하지만, 조화가 없으면 위대한 것도 망하게 한다. (살루스티우스)”

로마의 역사가 살루스티우스(Caius Sallustius Crispus)는 “조화(調和)는 작은 것들을 크게 성장하게 하지만, 조화(調和)가 없으면 위대한 것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말처럼 들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그저 헌법에나 있는 말로만 보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이 확실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말입니다. 지금의 국회는 동네 주민들의 친목계보다 못하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친목계를 조화롭게 잘 운영하여 동네의 발전을 이루는 상부상조하여 수준 높은 자치를 이루고 있는 동네 주민들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하기에는 함량 미달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투

표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사이좋게 피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살루티우스의 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듯합니다. 자연은 말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라고…. 조화를 이루어 서로 상생할 때 서로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난다고….